

與 “이달중 집시법 처리” 野 “국민 저항 부를 것”

■ 국회 행안위·정무위 국감

‘신한은행 사태’ 금융권 인사 개입 논란도

12일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 별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야간 옥외집회 허용 시간대를 둘러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문제와 신한은행 내분 사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치안 및 경호를 위해 집시법 개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됐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고수,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에서 반세계화 단체들의 극렬 시위가 예상된다”면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집시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지난 7월부터 야간집회가 사실상 전면 허용됐지만 폭력집회는 단 1건도 없었다”며 “여

당이 집시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선 전날에 이어 이날도 라오산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논란 등으로 촉발된 ‘신한은행 사태’와 KB금융지주 경영진 인사 논란 등 현 정부의 금융권 인사 개입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라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금감원의 라 회장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 조사 여부, 라 회장과 박연차 전 대광실업 간의 커넥션 의혹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은 “현 정권이 ‘금융권력’ 장악을 통해 관치금융을 부활시키려 한다”면서 선진국민연대 등 여론의 비선 라인과 금융권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권력의 사유화 논란에 대한 쟁점을 시도했다.

우재창 의원은 자체 입수한 국민은행 청문회 지참서와 “여신심사결정서 종합심사의견”을 근거로 “국민은행이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



순천교도소 방문한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위원장이 12일 순천교도소를 방문해 업무 현황을 들은 뒤 선규철 순천교도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며 격려하고 있다. /연필뉴스

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와 관련된 업체에 특혜대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한은행 내분사태와 관련, “신한 사태의 경우 금감원이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이미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권력 차원의 비호를 받증하는 것”이라

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금융감독 기관이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논란을 비롯, 신한 사태에 대해 지나치게 수동적, 소극적 검사 태도로 임하다 보니 의혹만 부풀리는 것 아니냐”라며 철저한 지휘감독권 행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

이밖에 교육과학기술위 국감에서는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위의 통계청 국감에서는 배추 값 등 생활물가지수를 비롯한 각종 국가통계의 오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감 인물

원전부지 선정 논란·SSM 피해 현황 등 맹활약

민주당 김재균 의원

김재균 민주당 의원(북.울)이 을 국정감사에서 원전부지 선정 논란, 대형마트 배추 사재기 의혹, 기업형슈퍼마켓(SSM) 피해 현황 등을 속속 파헤쳐 연속 안타를 터뜨리며 맹활약,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우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비공개로 원자력발전소 부지 선정에 나서고 있어 ‘제2의 부안 사태’가 우려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특히 한수원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원전 후보지에 전남의 해남, 신안, 보성 등이 포함됐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최근 채소 값 폭등으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형 마트들이 배추와 무 등을 사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로부터 자료를 확보, 지난 8월 국내 최대 농산물 시장인 가락동시장에서 배추와 무의 출하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대형 마트 등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늘거나 감소폭이 낮았



다는 점을 들어 ‘사재기’ 의혹을 제기, 시의적절한 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사업 선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최경환 지경부 장관과 송중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시하며 막강한 정보력을 과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 입점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에 대한 피해보상금 최대 1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정부의 무대책을 질타했다. 국회 지경위원회 관계자는 “김 의원이 어눌한 말씨와 달리 국감장에 들어서면 승각 질의를 펼쳐, 피감기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부상했다”며 “특히, 서민 생활과 관련한 시의적절한 질의는 당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농어촌공 이전부지 남의 땅에 설계”

금감원 고위 퇴직자 금융기관 재취업

한국농어촌공사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내 이전부지에 대한 매입 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사 설계 공모를 해 “앞뒤 안 맞는 일처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농식품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9월28일 모신문에 ‘농어촌공사 이전 본사사옥 신축 설계 공모’를 시행한다는 공고를 내면서 ▲대지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동약리 10-5번지 ▲대지면적: 115,466㎡ ▲연면적: 41,379㎡ ▲공사비: 839억 ▲영역비: 32억 등 세부 시행 내역까지 표시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국토해양부의 이전부지 승인에 의해 비록 광주·전남혁신도시 추진단의 혁신도시 조감도 상에 이전 예정지로 표시는 돼있다고는 하지만 청사부지 매입 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사 설계 공모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어찌된 ‘남의 땅에 내 집 건축 설계’를 하는 꼴”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금융감독원 출신 고위직 인사들이 퇴직 후 전원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12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 사이 퇴직한 금감원 2급 이상 88명 가운데 재취업 업체를 밝히지 않은 4명을 제외한 84명 모두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88명 중 대표이사 2명, 상임고문 1명, 사외이사 3명을 제외한 82명은 해당 업체의 감사로 재취업했다. 재취업 업체별로는 증권사가 20명도 가장 많았고 ▲보험사 19명 ▲저축은행 14명 ▲은행 12명 ▲자산운용사 8명 ▲카드사 7명 ▲신용정보 4명 등이었다.

특히 취업 일이 확인된 지난해 이후 재취업한 38명의 경우 퇴직 후 재취업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7일밖에 되지 않았다. 퇴직한 다음날 곧바로 재취업한 경우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2일이 소요된 경우가 7명 등 7일 내 재취업이 27명(71.1%)에 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2년 대선·총선 적용 재외국민 선거인단 파악 불가

나성린 의원 지적

오는 2012년 대선 및 총선부터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허용될 예정인 가운데 재외국민 관련 통계가 매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12일 “통계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통계는 외교통상부가 2년 주기로 제공하는 재외동포 인원현황에 불과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재외국민 선거인수에 대한 추정치만 갖고 있을 뿐

김희선 전 의원

금주 사전연장

김희선 전 의원(민주당)의 공천현금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대철)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의원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의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 등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필뉴스

“4대강 특위·개헌특위 동시 구성하자”

한나라 빅딜 제안에 여야 입장차 커 성사 미지수

한나라당이 12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가진 이근현 원내 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국회 개헌특위와 4대강 검증특위를 동시 구성하는 ‘빅딜’안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해왔고,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집행 및 예산 배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증특위 가동을 주장해왔다.

한나라당은 또 ▲개헌특위 구성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오는 25일 집시법 개정안 처리 ▲2개 SSM(기업형 슈퍼마켓) 법안의 분리 처리 등 4개 사항을 수용할 경우 ▲4대강 검증 ▲연금제도개선 ▲남북관계 ▲한·EU FTA 등 민주당이 요구해온 4대 특위를 받아들일

다는 ‘4대4 패키지 딜’도 함께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근현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4대강 검증특위를 포함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4개 요구사항을 받을 테니, 우리의 4개 요구도 받으라는 것”이라며 “오늘(12일) 합의는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및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었고, 개헌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정략적 개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어 이 같은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4대강 검증특위 가동 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점을 논의, 부분적인 예산 손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자체를 점검하고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북서군지사모집
www.party-food.co.kr

홈페이지 한글주소
파티외식산업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 개업식·기념식

★ 시외·시내 출장전문
★ 체육대회·야유회
★ 식탁·의자 무료지원
★ 연회장 주차장 원비

파티외식산업

상담전화: 광주본사 226-0085~7

- 목포지사 (061)284-1115
- 순천지사 (061)723-6003
- 전북·전주지사 (063)277-0083

가을맞이 부동산 축제 무료특강
2011년 부동산시장 전망과 재테크 성공전략

2010년 하반기 이후 정부 부동산정책을 살펴보고 시장의 변화를 전망합니다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정책과 현명한 투자전략을 찾을 수 있는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대전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연주제

- 1. 최근 부동산 활성화대책과 2011년 재-테크 성공전략**
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매개권 전문가)
- 한국생산성본부(KPCF) 부동산위촉교수
-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강의내용: - 혼돈기시대 부동산정책의 위아님이 성공전략 '위기는 기회다'
- 금년에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전세비법
- 2. 소액으로 강남부자 따라잡기 성공비법**
강사: 박관식 원부동산연구소장
- 중앙대 부동산재테크 전임강사, 롯데백화점 전임강사
- (사)대한부동산학회이사, 기업체 등 특강90회 이상 출강
강의내용: - 2011년 이후 한국 부동산시장전망과 투자자치의 비전제시
- 소액 돈으로도 우리는 과연 부자가 될 수 있는가?

■ 일 시: 2010년 10월 17일(일) 오후 1시~3시
■ 장 소: 대전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강연장
■ 강의료: 무료 (강의자료비 1,000원)
좌석 및 당일 온집관례로 사전에 전화 예약바랍니다.(선착순 90명 마감)
■ 후 원: 다와옥션 경매 사이트 이용권(3만원) 무료제공

전화 접수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042) 601-2800**
HP/017-613-1808

6년근 홍삼 활정원 活精源

아침 저녁 공복에 따뜻한 물한잔과 함께 드십시오!!

어울림참살이터에서는 공진단, 우황청심환과 함께 중국황제에게 진상되던 3대 비약중 하나로 정기스킨이 전정약속속에서도 항상 건강유지해왔던 비결이라고 전해지는 경옥고를 업그레이드한 6년근 홍삼 활정원을 다문화 가족과 함께 정성껏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옥고는 동의보감에 4,000여종의 처방 가운데 가장 첫번째로 수록된 제1처방으로, 양성연년약이면(養性延年藥餌篇, 건강하고 오래 살게하는 약)에 실려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타난 효능을 보면 [경옥고]는 정(精)과 수(髓)를 채워주고 진기를 고르게 하며, 원기를 보하여 노인을 젊어지게 하고, 모든 허손증(虛損證)을 보하며 온갖 병을 낫게 한다고 합니다. 또 정신이 좋아지고 오장이 충실해지며 흰머리가 다시 검어지고 뼈질이 다시 나오며, 걸음걸이가 뛰는 말과 같이 빨라집니다. 하루에 두세번씩 먹으면 종일토록 배고프거나 목이 마르는 일이 없습니다.

어울림 참살이터 이야기
어울림 참살이터에서는 이주여성들과 여러분이 함께 모여 세계적 명차 6년근 홍삼 활정원(경옥고 류)을 배워 만들어 판매하면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도록 함께 이루어 나가려 합니다.

일반교육생모집 (10주)과정 (직장인, 일반인)

- ▶ 경옥고 학교: 4회 매월 첫째주 토요일 10:00-15:00 월 회비: 100,000
- ▶ 전통차(보이차, 말차, 녹차): 4회 매주 화요일 10:00-13:00 1회 일반회원: 30,000
- ▶ 바리스타(커피이머지): 4회 매주 금요일 10:00-15:00

● ● ● 새! 어울림다문화센터 ● ● ● ☎062)676-8877 Fax, 655-7009
주소: 광주시 남구 봉선동 999-1

농협 301-0062-9920-11 사) 어울림참살이터
운영자: 김인숙 · 목포과학대학 사회복지교수, 어울림다문화 센터장